

남편의 성역할 고정관념, 다문화 감수성 및 아내문화수용이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결혼 및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대구경북지역 다문화 가정*

성 현 란†

대구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 다문화 가정에 있어서 남편의 성역할 고정관념, 다문화 감수성, 그리고 아내문화수용이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결혼 및 삶의 만족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대구경북지역의 다문화가정의 부부 100쌍이었으며 남편 평균 연령은 41.6세, 아내 평균 연령은 29.6세이었다. 결혼이주여성의 국적은 주로 베트남과 중국이었다. 주요 결과를 보면, 첫째, 남편의 성역할 고정관념, 다문화 감수성, 아내문화수용의 세 변인은 아내의 문화적응의 네 하위 요인(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 중 주변화에 대해서만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둘째, 남편의 이들 세 변인 중 아내문화수용만 아내의 결혼만족과 삶의 만족을 각각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셋째, 아내 문화적응의 네 하위유형 중 주변화는 아내의 결혼 및 삶의 만족을 유의하게 설명하였고, 통합은 삶의 만족만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남편의 성역할고정관념은 아내문화수용 및 다문화감수성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아내의 문화적응 중 동화는 통합과 약한 정적 상관, 주변화는 중간정도의 부적 상관을 보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결혼이주여성의 결혼 만족 및 삶의 만족은 남편의 이문화 이해를 비롯한 남편관련 변인에 의한 문화적응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개인의 문제가 아닌 다문화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임을 인식시켜주었다는 점이다.

주요어 :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 남편 성역할 고정관념, 남편 다문화 감수성, 아내문화수용, 문화적응, 결혼 및 삶의 만족

* 이 연구는 2010년 대구경북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에 도움을 주신 대구경북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와 연구수행에 도움을 준 당시 석사과정생 지은주 선생님에게 감사한다.

† 교신저자 : 성현란, 대구가톨릭대 심리학과, (712-702) 경북 경산시 하양읍 금락1리 330
Tel : 053-850-3234, E-mail : hrsung@cu.ac.kr

한국 사회에서는 1990년 이후부터 국제결혼 비율이 증가하게 되었다. 한국 연도별 전체 결혼 건수 중에서 국제 결혼 건수의 비율이 10%를 상회하게 된 것은 2004년(11.4%)부터이며, 2005년부터 2007년도 사이에도 계속하여 10%를 상회하고 있는데, 2007년도의 국제결혼 건수는 38,491건으로 전체 혼인 건수의 11.1%이다(통계청, 2009).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의 여성들이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통해 이주해오에 따라 국제결혼 가정, 즉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 및 학계의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고, 다문화 가정의 이주여성배우자의 한국생활적응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에 관한 많은 연구들에서 이들의 적응과 결혼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낮다고 보고되고 있다(김오남, 2006; 김한곤, 2009; 박경동, 2007; 박재규, 2007; 양순미, 정현숙, 2006; 윤형숙, 2005).

결혼이주여성의 생활 적응, 결혼 만족 또는 삶의 만족에 영향 미치는 변인들은 다양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나 많은 연구들에서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의 영향을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경제 수준(김영주, 2006; 김오남, 2006; 설동훈, 2006; 양순미, 2006), 배우자의 교육수준(양순미, 2006), 부부 간 연령차(김은경, 2008; 김한곤, 2009), 남편의 지지(김오남, 2007), 한국 거주 모국인과의 교류(윤형숙, 2004; 정천석, 강기정, 2008), 남편의 가부장적 사고(김영주, 2006; 변미희, 강기정, 2010; 설동훈, 2006; 안현정, 2003), 출신 국가(양순미, 2006) 의사소통방식(강유진, 1990; 김오남, 2006; 김진희, 박옥임, 2008; 양순미, 2006; 윤형숙, 2004), 도시지역거주 대 농촌지역거주(김오남, 2006; 김진희, 박옥임, 2008), 결혼년수(김진희, 박옥임, 2008), 동거가족형태(박정숙,

박옥임, 김진희, 2007) 등이 있다.

보다 최근으로 오면서 자아존중감(박정숙, 박옥임, 김진희, 2007; 변미희, 강기정, 2010)이나 우울(김오남, 2007; 천혜정, 민성혜, 이민영, 최혜영, 2009)과 같은 결혼이주여성의 성격적 측면과 결혼 만족 간의 관계를 밝히고자 한 연구들이 있다.

최근의 연구들에서 다루기 시작한 결혼 만족에 관련한 다른 주요 변인으로서 결혼이주 여성의 문화적 적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인 부부와 다르게 부부 간에 문화적 차이가 존재할 수 밖에 없고, 문화적 문제는 결혼생활을 원만하게 해 나가기 위해 극복해야 할 요소 중 하나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문화에서 문화적 차이에 의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한국생활에의 적응이 어려워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오남, 2006; 문은희, 2007; 박재규, 2007; 양순미, 정현숙, 2006; 유영은, 2006; 이정희, 2006). 대부분의 결혼이주여성들이 같은 아시아권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유교전통이 강한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적응하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 이들은 한국에 와서 남녀 성역할의 차이가 크고 가정에서 남편의 권한이 크며 남편의 명령과 지시에 복종해야 하는 가부장적 사고를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적응에 어려움을 느낀다. 집안일에 대한 가사노동분담(조혜선, 2003)이나 핵가족 외에 시부모, 형제, 그리고 친족망의 관계(박정숙 등, 2007; 성지혜, 1996; 홍기혜, 2000)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결혼이주여성들이 겪게 되는 문화적 관습에 의한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증가시킴으로써 한국생활 부적응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김오남(2006)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갈등정도가 비교적 높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

으며, 이는 결혼 이주여성이 갖는 문화적 차이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반 가정에 비해 결혼 적응 스트레스가 증가되기 때문으로 보았다. 양순미와 정현숙(2006)도 국제결혼 부부는 언어적 장벽과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적응과정에서 국내의 혼인 부부들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박재규(2007)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적응수준이 낮은 이유로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들며, 특히 농촌의 경우는 생활만족 수준이 더 낮았는데 주목할 만한 것은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정도에 따라 이들의 결혼 적응 수준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김한곤(2009)도 다문화가정의 경우 평등한 부부에서 갈등이 적고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이들의 생활적응이 비교적 낮은 편이었으며 특히 제사 모시기와 같은 가부장제 문화에 대한 적응도가 낮다고 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결혼이주여성들의 결혼 만족 및 삶의 만족의 중요한 요인으로 문화적 차이에 대한 적응, 즉 문화적응(acculturation)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이 모국과는 다른 문화에 적응하는데에는 가족의 역할이 중요하며, 특히 남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남편이 한국문화와 아내 문화의 차이를 인식하고, 아내 문화를 동등한 문화로서 인정해준다면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적응하는 데에 긍정적 효과를 가질 것이다. 반대로 한국문화를 아내문화보다 우월하다고 간주하고 일방적으로 한국문화를 강요한다면 오히려 한국문화에 대한 적응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한국 사회에서 국제결혼은 농촌 총각과 외국 여성을 결혼시켜주는 국제결혼알선업체를

통한 결혼이 가능하게 되면서부터 증가하였다. 이주여성배우자들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며, 모국의 경제적 곤란을 탈피하려는 동기가 많이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국제결혼의 배경으로 인해 한국 사회에서는 다문화가정을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부정적 시선을 가지고 보는 경향이 있고, 각 다문화가정에서도 이주여성배우자에 대해 배우자 쪽의 문화와 국가 정체성을 동등하게 수용해주기 보다는 일방적으로 한국문화를 수용하도록 강요하고, 한국의 차별적 성역할을 부과함으로써 이주여성의 결혼 과 삶의 만족을 낮추는 요인이 되었다(박주희, 정진경, 2007).

이민자들의 문화 적응에 관한 이론 중 Berry(1990, 1997)의 4차원 이론이 많은 학자들에게 수용되고 있다. Berry는 문화 적응 전략을 통합(integration), 동화(assimilation), 분리(separation), 그리고 주변화(marginalization)로 구분하였는데, 통합은 모국 문화에 대한 정체성도 유지하면서 주류 문화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고, 동화는 주류 문화를 주로 적극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며, 분리는 주류 문화를 수용하기보다 모국 문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끝으로 주변화는 모국문화와 주류문화의 어느 쪽도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한국에서의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에 관한 연구들로는 문화적응과 모자상호작용의 관계(전은애, 2008), 문화적응과 회복력 및 대처능력의 관계(최혜지, 2009), 문화정체성과 결혼만족의 관계(권복순, 차보현, 2006; 전병희, 2009), 남편의 다문화수용태도 및 우울과 아내의 결혼만족과의 관계(변미희, 강기정, 2010)에 관한 연구들이 소수 이루어졌다. 권복순과 차보현(2006)은 결혼이주여성의 한국문화정체성이 높

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고, 반대로 모국문화 정체성은 낮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하였고. 전병희(2009)는 남편이 아내의 모국문화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질 때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가 더 높다고 보고하였다. 최혜지(2009)는 원문화유지도와 이주문화유지도에 따라, 개인의 문화적응전략을 통합, 동화, 분리 그리고 주변화 중 한 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 필리핀과 베트남 출신의 결혼이주여성은 통합이 높은 편이고, 태국, 북한, 그리고 중국 출신의 결혼이주여성은 주변화가 높은 편이었다. 또한 배우자의 학력이 높을수록 결혼이주여성은 주변화 유형이 많았고, 배우자 학력이 낮을수록 통합 유형이 많았다. 또한 배우자의 학력이 높으면 결혼이주여성의 학력도 높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 모국에서의 지위를 한국에서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국문화습득에 소극적이고 멀어지게 되는 주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또한 문화적응전략과 회복력 및 대처와의 관계에서 분리 유형이 통합과 동화 유형보다 회복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처능력에 있어서도 분리가 통합과 주변화 유형보다 높았다. 최혜지(2009)의 결과에서 통합 유형에 비해 분리 유형의 회복력과 대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일반적으로 통합 유형이 긍정적 적응과 연관이 있는 것(Berry, 1997, 2006; Berry & Sam, 1997)과는 상반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전은애(2008)의 연구에서는 문화적응전략을 통합, 동화, 분리, 그리고 주변화의 네 가지 차원에 따라 분석한 결과, 통합차원이 높을수록 결혼이주여성들이 긍정적 양육과 긍정적 상호작용을 하는 경향이 있었고, 주변화가 높을수록 부정적 양육과 부정적 상호작용을 하

는 경향이 있으나, 분리와 동화는 이들 특성과 유의미한 관련이 없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통합이 낮을수록 결혼이주여성의 우울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모국문화와 한국문화 모두에 참여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문화적응 전략인 통합전략은 한국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에 있어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문화 적응에 대한 연구는 앞에서 개관한 바와 같이 소수가 이루어졌으나 이들의 문화적응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선행 변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남편 관련 선행 변인에 관한 연구 역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남편의 성역할 태도와 다문화 수용태도가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생활 적응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 연구들(변미희, 강기정, 2010; 안현정, 2003; 장온정, 2007)은 있지만 남편의 성역할태도와 아내의 문화적응 간의 관련성을 검토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결혼만족과 관련된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의 선행 요인으로서, 남편이 가지는 성역할 고정관념과 이문화에 대한 이해에 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남편이 가지고 있는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라 결혼이주여성들의 남녀역할 평등사고에 문화적 충격을 가져옴에 따라 이는 결혼 및 삶의 만족과 관련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성역할 고정관념은 일반적 가치관의 하나로써 남편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남성)가 타인(여성)의 특성을 평등하게 생각하는 정도를 보여주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성역할 고정관념은 이문화의 가치와 관습에 대한 관심과 수용을 반영하는 다문화감수성과 아내 문화수용과는 부적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연구들은 그들의 문화를 한국 문화와 동등한 위치에 두는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의 관점에서 보기도, 배타적이고 우월주의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왔다고 볼 수 있다. 다문화주의란 서로 다른 언어, 문화, 종교 등을 가진 다양한 국가 배경에 대해 어느 한 문화를 더 우월하다고 보지 않고 서로 동등하다는 관점에서 문화들 간의 독특성을 인정하고자 하는 관점이다. 그동안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연구들에서 그들을 피해자로 보고, 부적응의 책임을 결혼이주여성에게 전가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한국문화를 우월하다고 보고 결혼이주여성이 적응하기 위해서는 한국문화에 일방적으로 동화하도록 강요하려는 사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생활 적응은 일방적 동화를 강요하거나 한국문화의 우월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 다문화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할 때 더욱 타당하게 이해할 수 있고 그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생활 적응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의 다문화 감수성을 비롯한 이문화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있고, 특히 남편의 사고방식과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남편의 성역할에 대한 사고방식과 다문화에 대한 감수성은 아내의 문화적응의 중요한 선행변인일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자료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부부쌍을 직접 조사하여 다룬 연구는 극소수(예, 변미희, 강기정, 2010)에 불과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과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 남편 관련 변

인의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부부를 대상으로 남편과 아내의 관련 변인을 함께 조사하여 검토함으로써 결혼이주여성의 적응문제를 결혼이주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닌 남편과의 상호적 관계에서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전략을 네 가지 유형 중 한가지로 분류한 선행 연구(권복순, 차보현, 2006; 전병희, 2009; 최혜지, 2009)들과 다르게 네 가지 적응전략 모두를 차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한국의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전략에 대한 기초적 연구들이 많지 않아 각 적응전략과 다른 변인들 간의 관계들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남편의 성역할 고정관념, 다문화감수성 및 아내문화수용이 아내의 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하고, 둘째, 남편의 성역할 고정관념, 다문화감수성 및 아내문화수용이 아내의 결혼 만족과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하고자 하며, 셋째, 아내의 문화적응이 아내의 결혼 만족 및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이제 한국사회도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만큼 다문화가정을 다문화주의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문화주의적 관점에서 수행되는 본 연구의 결과는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사회적응을 증진시키고, 다문화가정의 적응을 증진시키기 위해 문화적응적 측면에 대한 근거의 파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 법

대상 및 절차

대구·경북지역의 다문화가정의 140쌍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나 119쌍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이 중 14쌍은 아내 또는 남편의 응답 방식이 일률적이거나 많이 누락되었고 5쌍은 남편의 비협조 또는 부재 중의 이유로 설문지 회수가 어려워, 최종적으로 결혼이주여성 응답자 100명과 이들의 남편 100명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주여성들의 대다수가 베트남과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설문지를 베트남어와 중국어로 번안하였고, 그 이외의 국적의 경우에는 한국어 이해 능력에 따라 한국어 설문지에 직접 답하거나 다문화 가정 방문지도사의 도움을 받아 답하도록 하였다. 자료수집은 2010년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아내의 경우 4~5명 정도의 소집단 실시 방식으로 이루어지거나 개별적으로 설문지가 실시되었다.

설문지

아내에게는 결혼 만족, 삶의 만족, 문화 적응을 측정하는 설문지를 실시하였고, 남편에게는 성역할 고정관념, 아내문화수용, 그리고 다문화 감수성을 측정하는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그 이외에 필요한 인구통계학적 사항들을 아내 또는 남편을 통해 측정하였다.

결혼 만족

안현정(2003)이 사용한 결혼만족척도를 사용하였다. 전체 27문항이며, 6개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반적 불만족(4문항), 정서적 의사소통문제(3문항), 문제 해결 의사소통문제(4문항), 공격 행동(2문항), 성적 불만족(4

문항),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5문항)이며, 리커트 5점 척도이다. 대부분의 문항이 결혼불만족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불만족 문항을 역채점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이 높다. 본 연구에서 이들 6개의 하위척도의 내적 일관성 계수(Cronbach's α)는 각각 .62, .56, .55, .62, .58, .68로 3개 요인의 내적 일관성 계수가 .60이하로 다소 낮게 나타났는데, 이의 주된 이유는 이들 하위요인에 포함된 문항의 수가 적기(2-3개) 때문일 수 있다.

삶의 만족

본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을 측정하는 데에는 양옥경(1994)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의식주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부터 철학까지 삶의 만족을 포괄적으로 측정하며 총 33개 문항,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요인분석 결과, 선행연구와 같이 가족 및 친척관계, 자아감 및 일반적 삶, 친구 및 대인관계, 주거환경, 신체 및 정신건강, 의·식·경제 정도, 여가활동, 직업 및 하루 일과의 총 8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문항분석 결과 문항 총점과의 상관이 .20이하로 나타난 1번 문항을 제외한 전체 내적 신뢰도 (Cronbach's α , 이하 동일)가 .93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른 요인들과의 상관이 매우 낮게 나타난 신체 및 정신건강 척도를 제외한 7개 척도의 총점을 삶의 만족 점수로 사용하였다.

성역할 고정관념

결혼이주여성의 남편의 성역할고정관념은 Osmond와 Martin(1975)의 성역할태도 척도(Sex Role Attitude Scale)를 기초로 하여 정승혜(1998)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8개 문항

이며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문항중점 상관인 .20이하로 나타난 4번 문항을 제외시킨 총 17개 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는데 내적 신뢰도는 .90이었다.

문화적응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유형을 측정하기 위하여 전은애(2008)가 번안하여 사용한 문화적응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Barry(2001)의 문화적응척도(The East Asian Acculturation Measure, EAAM)를 번역 및 수정하여 사용하였는데 EAAM은 Berry(1980)의 네 가지 문화적응 차원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의 네 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커트 5점 척도이다. 전은애는 총 29문항으로 구성된 EAAM에서 내용이 적합하지 않은 1개 문항을 제외하고 28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각 하위요인별 내적 신뢰도는 통합 .51, 동화 .62, 분리 .68, 주변화 .78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문항중점 상관인 .20이하로 낮게 나타난 4개 문항(2, 3, 5, 24번)을 제외한 24개 문항의 신뢰도 분석결과는 통합 .42, 동화 .69, 분리 .57, 주변화 .81로 나타났다. 통합 요인의 신뢰도가 낮게 나타났다으나 포함된 문항수가 적음(3개) 탓일 수도 있다. 선행연구의 4개 요인을 가급적 유지하기 위한 측면도 있고, 분석 과정에서 4개 요인 점수를 합산하는 것과 같은 조작이 없기 때문에 신뢰도가 낮은 요인을 제외시키지 않고 분석에 포함시켰다.

아내문화수용

아내 나라의 문화에 대한 남편의 수용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자가 개발한 것으로 총 9개 문항,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

다. 척도의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1번, 2번, 3번, 6번, 8번의 한국문화 강요 요인과 4번, 7번, 9번의 아내문화 배려의 요인으로 나뉘어져 두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분됨을 보여주었다(부록 참조). 5번 문항(나는 아내 나라의 음식을 좋아 한다)은 어느 요인에도 포함되지 않아 분석 과정에서 제외하였다. 하위요인별 내적 신뢰도는 한국문화 강요는 .81, 아내문화 배려는 .71로 나타났다. 한국문화 강요는 모두 역채점 하였으며 이를 함께 점수로 낸 뒤 ‘아내문화 수용’으로 간주하였다. 총점수가 높을수록 아내문화수용은 높다. 한국문화 강요의 문항 예로는 “나는 아내가 아내 나라의 말을 안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한다”, “나는 아내 나라의 생활이나 풍습을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 한다”. 아내문화 배려의 문항 예로는 “나는 아내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좋다”, “나는 아내가 고향을 그리워할 때 그 이야기를 들어 준다” 등이 있다.

다문화 감수성

Chen과 Starosta(2000)에 의한 다문화 감수성 척도(Intercultural Sensitivity Scale)를 지은주(2011)가 번안,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2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은주의 연구에서 요인분석을 통해 6개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였으며 척도의 전체 신뢰도를 .85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총 5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었으며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90이었다. 하위 요인별 신뢰도는 상호작용참여 .67, 문화적 차이의 존중 .70, 상호작용 자신감은 .81, 상호작용 즐기기 .72, 관심 있는 상호작용 .45로 나타났다. 이 척도는 리커트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 감수성은

높다고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5개의 하위 요인의 평균을 다문화감수성 점수로 사용하였다. 5개의 요인 중 ‘관심 있는 상호작용’ 요인에 포함된 3개 문항의 내적 신뢰도가 .45로 낮게 나타나 총점을 계산할 때 이 요인의 제외를 고려하였다. 그러나 이 요인이 다른 요인들과 상관이 높고 5개의 요인 점수를 문항으로 간주하고 내적신뢰도를 계산하였을 때 이 요인의 문항-총점 상관이 매우 높게 나타나(.61) 이 요인이 다문화 감수성이라는 상위 개념을 측정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가급적 선행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를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5개 요인을 모두 포함시켰다. 또 낮게 나타난 내적 신뢰도는 문항수가 적은 탓일 수도 있다.

자료 분석

자료의 분석에는 단순상관분석과 중다회귀 분석이 행해졌으며, 통계적 분석에 SAS window 8.2가 사용되었다.

결 과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결혼이주여성의 국적은 베트남(52%)과 중국(21%)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남편의 평균 연령은 41.6세(표준편차 7.1세)이었고, 40대(55%)가 가장 많았고, 30대(30%)가 그 뒤를 이었다. 아내의 평균 연령은 29.6세(표준편차, 8.3세)이었고, 20대(57%)가 가장 많았고, 30대(31%)가 그 뒤를 이었다. 부부간 연

령차의 분포를 보면, 아내가 남편보다 연상인 경우가 6%, 0-4세 차이 6%, 5-9세 차이 16%, 10-14세 차이 31%, 15-19세 차이 21%, 20세 차이 이상도 15%이었다. 이에 따라 부부간의 연령차는 10-14세 차이와 15-19세 차이가 대다수를 차지함으로써 한국의 일반적 가정에 비해 연령 차이가 큼을 알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 부부 가정의 월 가계소득은 2백만원 이하가 전체 연구대상 가구의 5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낮은 소득의 비율이 많은 편이었다.

남편 학력은 중졸 이하 16%, 고졸 47%, 그리고 대졸 이상이 26%이었다. 아내 학력은 중졸 이하가 35%, 고졸 52%, 그리고 대졸이 13%이었다. 이에 따라 고졸 이상이 남편의 경우 73%, 아내의 경우 65%로 남편의 학력이 더 높은 편이었다.

결혼이주여성과 혼인에 이르게 된 경로는 결혼중개업자 소개(55%)가 가장 많았고 친구나 지인의 소개(17%)가 뒤를 이었으며, 이전에 국제결혼한 사람의 소개도 11%가 되었다. 결혼이주여성의 한국거주기간을 보면, 6년 미만이 77%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의 전화, 편지, 이메일을 통한 모국 가족과의 연락 횟수는 월 1-2회 이상으로 연락하는 경우가 전체의 86%를 차지해 대체로 연락을 자주하는 편이었다. 그러나 연락을 거의 하지 못하는 경우도 11%이었다. 동거 가족 형태는 부부만 사는 경우가 16%, 부부와 자녀가 동거하는 경우가 34%, 아직 자녀 없이 시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가 13%, 부부, 자녀 및 시부모가 함께 사는 경우는 24%이고 여기에 남편의 형제들도 함께 사는 경우가 6%, 부부와 남편 형제가 함께 사는 경우가 2%로 나타났다. 이들 남편의 직업은 회사원 48%, 자

표 1.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N (%)	변인		N (%)
아내 국적	베트남	52(52)	남편 학력	초등학교 졸업	3(3)
	중국	21(21)		중학교 졸업	13(13)
	필리핀	6(6)		고등학교 졸업	47(47)
	태국	4(4)		대학교 졸업	24(24)
	조선족	3(3)		대학원 졸업	2(2)
	기타	14(14)		무응답	11(11)
	무응답	0(0)		합계	100(100)
	합계	100(100)	혼인 경로	결혼중계업자	55(55)
아내 연령	20대	57(57)		종교단체	3(3)
	30대	31(31)		친구나 지인	17(17)
	40대	5(5)		가족	4(4)
	50대 이상	3(3)		결혼한 사람 소개	11(11)
	무응답	4(4)		연애	6(6)
	합계	100(100)		무응답	4(4)
남편 연령	20대	2(2)		합계	100(100)
	30대	30(30)	한국거주기간	2년 미만	29(29)
	40대	55(55)		2-4년 미만	25(25)
	50대 이상	8(8)		4-6년 미만	23(23)
	무응답	5(5)		6-8년 미만	11(11)
	합계	100(100)		8년 이상	11(11)
부부 연령차	부인>남편	6(6)		무응답	1(1)
	04세	6(6)		합계	100(100)
	5~9세	16(16)	모국 연락	주 3-4회 이상	16(16)
	10~14세	31(31)		주 1-2회	44(44)
	15~19세	21(21)		월 1-2회	26(26)
	20세 이상	15(15)		6개월에 1-2회	2(2)
	무응답	5(5)		1년에 1-2회	1(1)
	합계	100(100)		거의 못함	11(11)
가계소득	100 만원 이하	10(10)		무응답	0(0)
	101-200 만원	49(49)		합계	100(100)
	201-300 만원	30(30)	남편 직업	회사원	48(48)
	300 만원 이상	8(8)		자영업	17(17)
	무응답	3(3)		생산직	6(6)
	합계	100(100)		농업	6(6)
아내 학력	초등학교 졸업	4(4)		일용직	2(2)
	중학교 졸업	31(31)		기타	2(2)
	고등학교 졸업	52(52)		무응답	19(19)
	대학교 졸업	13(13)		합계	100(100)
	무응답	0(0)			
	합계	100(100)			

영업 17%, 생산직 6%, 농업 19%, 일용직 2%, 기타 2%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변인 들 중에서 부부간 연령차가 클수록 결혼만족은 낮았고, 삶의 만족과는 무관하였다(각각, $F_{3,89}=4.35$, $p<.05$; $F_{3,89}=1.36$, ns), 소득이 높을수록, 부인학력이 높을수록 결혼 만족이 높았다(각각, $F_{2,84}=7.65$, $p<.01$; $F_{3,83}=5.44$, $p<.01$). 남편학력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이 높았다($F_{4,83}=5.88$, $p<.05$). 아내연령, 혼인경로와 거주기간에 따른 결혼 및 삶의 만족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남편의 성역할 고정관념, 다문화 감수성 및 아내문화수용과 아내의 문화적응

본 연구의 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연구문제는 문화적응의 선행변수로 알려진 남편의 성역할 고정관념, 다문화 감수성 및 아내문화수용과 아내의 문화적응 간의 관계이다. 변인 간 상관분석 결과(표 2 참조), 문화적응의 4개요인 중 가장 강한 부적응적 지표인 주변화요인만이 3개의 선행 요인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남편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주변화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남편의 아내문화수용과 아내의 다문화감수성은 주변화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표 2. 남편 관련 변인들과 아내 관련 변인들 간의 전체 상관

	M (SD)	남편			아내				결혼 만족	삶의 만족
		성고정 관념	아내문화 수용	문화 감수성	문화적응					
					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		
남편										
성고정 관념	2.76(.61)	1.00								
문화수용	3.41(.63)	-0.73***	1.00							
문화감수성	3.35(.46)	-0.60***	0.53***	1.00						
아내										
문화적응										
통합	3.13(0.66)	-0.01	0.14	-0.11	1.00					
동화	2.73(0.56)	0.05	-0.13	0.05	0.20*	1.00				
분리	3.51(0.71)	0.05	-0.15	-0.08	0.03	-0.00	1.00			
주변화	2.58(0.62)	0.33***	-0.36***	-0.24*	-0.07	0.41***	0.04	1.00		
아내										
결혼 만족	3.48(.54)	-0.34***	0.39***	0.17	0.04	-0.32*	-0.16	-0.43***	1.00	
삶의 만족	3.32(.53)	-0.31**	0.38***	0.20*	0.31**	-0.07	0.05	-0.34***	0.44***	1.00

* $p<.05$, ** $p<.01$, *** $p<.001$, 성고정관념은 성역할 고정관념을, 문화수용은 아내문화수용을 의미함.

남편의 가부장적 성역할 고정관념, 아내문화수용 및 다문화감수성의 3개 변수를 독립변인으로, 문화적응의 하위 요인 중에서 주변화 요인을 종속변인으로 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이들 3개의 독립변인이 주변화에 미치는 종합적인 설명 효과는 14.00%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F_{3,96}=5.27$, $p<.01$), 3개 독립변인들 간의 상호상관이 높아(표 2 참조) 다중공선성으로 인해 개별 변인들의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남편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아내문화수용 및 다문화감수성이 결혼 만족과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문제는 남편의 성역할 고정관념, 아내문화수용 및 다문화감수성과 결혼 만족 및 삶의 만족에 관한 관계이다. 표 2에 제시한 상관분석 결과, 남편의 성역할 고정관념은 아내의 결혼 및 삶의 만족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 남편의 아내문화수용은 결혼 및 삶의 만족과 유의한 정적인 상관을, 남편의 다문화감수성은 삶의 만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기는 했지만 다른 독립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을 보였다.

아내의 결혼 만족을 종속변인으로 한 중다

표 3. 결혼만족에 대한 세 선행변인의 중다회귀분석

변수	<i>b</i>	β	<i>t</i>
절편	3.28		
남편 성역할고정관념	-0.14	-0.16	-1.07
남편의 아내문화수용	0.28	0.32	2.32*
문화감수성	-0.10	-0.09	-0.75

* $p<.05$,

표 4. 삶의 만족에 대한 세 선행변인의 중다회귀분석

변수	<i>b</i>	β	<i>t</i>
절편	2.71		
남편 성역할고정관념	-0.08	-0.09	-0.61
남편의 아내문화수용	0.28	0.33	2.35*
문화감수성	-0.03	-0.03	-0.25

* $p<.05$,

회귀분석 결과(표 3 참조), 3개 변인이 결혼 만족을 설명하는 비율이 16.30%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F_{3,96}=6.23$, $p<.001$), 개별 변인의 효과로는 남편의 아내문화수용이 높을수록 결혼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의 삶의 만족을 종속변인으로 한 중다회귀분석 결과(표 4 참조), 3개 변인이 삶의 만족을 설명하는 비율이 14.79%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F_{3,96}=5.55$, $p<.01$), 개별 변인의 효과로는 남편의 아내문화수용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결혼만족과 삶의 만족을 종속변인으로 한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아내의 문화적응과 결혼 및 삶의 만족

본 연구의 세 번째 연구문제는 아내의 문화적응과 결혼 및 삶의 만족 간의 관계이다. 상관분석 결과, 문화적응의 4개 하위요인 중 부적응적 지표인 주변화는 아내의 결혼 및 삶의 만족 모두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적응적 지표인 통합요인은 삶의 만족과만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동화요인은 결혼만족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분리요인은 결혼 만족 및 삶의 만족 요인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문화적응의 4개 요인을 독립

표 5. 결혼만족에 대한 아내의 문화적응의 중다회귀분석

변수	<i>b</i>	β	<i>t</i>
절편	5.01		
통합	0.05	0.06	0.63
동화	-0.18	-0.19	-1.82 [†]
분리	-0.11	-0.15	-1.67 [†]
주변화	-0.31	-0.35	-3.48 [*]

† <.10, * $p < .001$

표 6. 삶의 만족에 대한 아내의 문화적응의 중다회귀분석

변수	<i>b</i>	β	<i>t</i>
절편	3.15		
통합	0.23	0.28	2.99 [*]
동화	0.01	0.01	0.01
분리	0.04	0.06	0.63
주변화	-0.28	-0.32	-3.12 [*]

* $p < .001$

변인으로, 결혼 만족과 삶의 만족 각각을 종속변인으로 한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각각 표 5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아내의 결혼 만족을 종속변인으로, 문화적응의 4개 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한 중다회귀분석 결과(표 5 참조), 4개 변인이 종합적으로 결혼 만족을 설명하는 비율은 23.68%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_{3,9}=7.37$, $p < .001$). 주변화 요인은 결혼 만족에 부적 영향을 미쳤고, 동화요인과 분리요인은 부적 경향성이 관찰되었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t=-1.82$, $p < .10$). 아내의 삶의 만족을 종속변인으로 한 중다회귀분석 결과(표 6), 문화적응의

4개 하위 요인이 종합적으로 삶의 만족을 설명하는 비율은 19.88%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F_{3,9}=5.89$, $p < .001$), 4개 독립변인 중 통합은 정적으로, 주변화는 부적으로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가정에 있어서 남편의 성역할 고정관념, 다문화감수성, 그리고 아내 나라의 문화수용이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결혼 만족 및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 대구·경북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의 아내와 남편에게 설문지를 실시하여 100쌍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혼이주여성들의 대다수가 베트남과 중국 국적이었으며 베트남 국적이 가장 많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들을 기술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남편의 성역할 고정관념, 다문화감수성 및 아내문화수용과 아내의 문화적응 간의 관계를 상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이들 3개의 선행 요인은 문화적응의 하위 요인인 주변화 요인과만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다. 즉 남편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주변화경향이 높아 문화적응이 낮음을 보였고, 반대로 다문화감수성과 아내문화수용이 낮을수록 주변화가 높아, 부정적 문화적응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남편의 세 선행변인이 아내의 주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들 세 변인은 주변화를 유의하게 설명하였으나 세 변인 간 공선성이 높아 개별 변인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남편의 성역할 고정관념, 다문화감수성 및 아내문화수용과 아내의 결혼 만족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를 상관분석 한 결과를 보면, 남편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아내의 결혼 및 삶의 만족이 낮았고, 다문화 감수성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이 높았다. 남편의 아내문화수용이 높을수록 아내의 결혼 및 삶의 만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선행변인이 아내의 결혼 및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중다회귀분석에 의해 검토한 결과, 이들 세 개의 선행변인은 결혼 만족을 유의하게 설명하였고, 삶의 만족 또한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개별적 변인으로는 아내문화수용만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내문화수용이 높을수록 결혼 만족과 삶의 만족이 높았다. 이들 결과로부터 남편이 가지고 있는 남녀의 역할에 대한 가부장적인 사고는 낮은 다문화 감수성과 함께 결국 아내문화수용을 낮춤으로써 동남아시아 출신의 결혼이주여성으로 하여금 결혼 만족과 삶의 만족을 낮추게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성역할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결혼 만족 및 삶의 만족이 낮아지는 결과는 성역할 불평등이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을 낮춘다고 나타난 질적 선행연구(박주희, 정진경, 2007)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남편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아내의 결혼 만족 및 삶의 만족 간에 부적 상관이 유의하였으나, 개별 효과로서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결혼 및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변미희와 강기정(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변미희와 강기정(2010)의 연구에서도 성역할 고정관념이 결혼만족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으나 개별 변인으로서 결혼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긍정적 다문화수용태도만이 아내의 결혼만족에 유일하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먼저 아내의 문화적응과 결혼 만족 및 삶의 만족 간의 상관분석 결과, 문화적응의 4개 하위 요인 중 부적응적 지표인 주변화가 높을수록 아내의 결혼 및 삶의 만족은 낮았다. 적응적 지표인 통합의 경우에는 이것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이 높았으나, 결혼 만족과는 관련이 없었다. 동화는 높을수록 결혼 만족이 낮았으나, 분리는 결혼 및 삶의 만족과 관련이 없었다. 문화적응의 4개 하위 요인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들 4개 하위요인이 결혼만족을 유의하게 설명하였으며, 개별적 변인으로는 주변화 요인만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쳤는데, 주변화가 높을수록 결혼만족이 낮았다. 또한 문화적응의 4개 하위요인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이들 요인들이 삶의 만족을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개별요인들로는 통합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이 높았고, 주변화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이 낮았다. 본 연구 결과에서 한국과 모국 문화 어디에도 적응하지 못하는 것을 반영하는 주변화 요인은 결혼 만족과 삶의 만족 모두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통합은 삶의 만족에만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는 부적응보다는 적응과 관련된다고 간주되는 동화 요인은 예상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 결혼 만족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 부적응과 관련된 주변화 책략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 척도를 개발한 Barry(2001)의 연구에서는 동화가 문화적 적응의 긍정적 측면을 보여 통합과 정적 상관을 보인 것과는 상반된 현상이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Barry(2001)의 연구에서 미국의 아

시아이민출신 대학생을 대상으로 얻어진 결과로서, 교육수준이 비교적 높은 집단이었으나 본 연구의 결혼이주여성은 그에 비해 교육수준이 더 낮고, 대다수가 이주기간이 6년 미만으로 한국에 이주하여 생활한 기간이 더 짧다는 차이점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민 후 거주기간의 영향도 문화적응 책략과 관련이 있으며 이민 기간이 길수록 통합이 증가하고, 모국문화정체성은 감소하며, 주류문화정체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이 밝혀진 바 있다(예, 금명자, 권혜수, 이희우, 2004; Berry, Phinney, Sam, & Vedder, 2006).

동화는 자발적 동화와 비자발적 동화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박주희, 정진경, 2007), 아마도 교육수준이 높고 이주국가에서의 거주기간이 긴 경우에는 비자발적 동화보다는 자발적 동화일 가능성이 많아 필요에 의해 스스로 이주국가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동화하는 경우에 비해 본 연구의 대상자와 같이 비교적 짧은 한국 거주기간과 더불어 한국사회와 남편을 비롯한 가족의 강요에 의해 동화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동화가 부정적 성질과 연관될 수 있을 것이다. 박주희와 정진경(2007)은 소수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유형에 통합과 동화가 많았으며, 모국문화 중에서 좋은 점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유지하는 동시에 한국문화에 자녀를 키우고 살아가기 위해 한국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통합을 보이거나 또는 통합과 동화가 적절히 혼합된 경우에 한국생활을 더 적응적으로 한다고 하였고, 반면에 가족의 강요에 의해 비자발적 동화를 보이는 경우에는 매우 불행감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동화가 부정적 성질을 갖는 것으

로 나타난 것은 전은애(2008)의 연구에서 동화와 통합이 높을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낮음으로써 동화가 긍정적 측면을 보인 것과는 차이가 있다. 전은애(2008)의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교육수준이 다소 높은 경향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의 결혼이주여성은 교육수준이 더 낮은 경향이 있어 본 연구 대상자들이 비자발적 동화를 보였을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라 이러한 차이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인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남편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남편의 아내문화수용과 다문화감수성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남편의 성역할 고정관념은 반대 성을 가진 아내의 역할을 평등하지 않게 보는 경향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결국 한국문화가 아닌 이문화에 대한 민감성이나 아내문화에 대한 수용이 낮아지는 경향과 밀접하게 연관됨을 증명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에 영향 미치는 남편 관련 변인들의 영향을 검토함에 있어 부부쌍을 함께 조사하여 그 관련성을 검토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의 몇몇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이 결혼만족에 영향 미친다고는 보았으나, 이들의 문화적응의 선행 변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검토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를 통해 남편의 성역할고정관념, 문화수용 및 다문화감수성이 종합적으로 주변화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결국 결혼 및 삶의 만족에 영향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남편 쪽에서 남녀의 역할을 평등적으로 인식하고 무엇보다 아내의 문화의 가치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오히려 결혼이주여성으로 하여금 한국사회에 안정되게 뿌리를 내리고 생활할 수 있게 할 것임을 인식하게 해주었다.

둘째, 본 연구에서 남편의 이문화에 대한 일반적 감수성이 아니라 아내문화수용이 결혼이주여성의 결혼 및 삶의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에는 남편이 일반적으로 외국문화를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내에게 한국문화를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아야 하고, 아내의 모국에 대한 향수와 아내나라문화를 존중해주는 것과 같은 아내나라의 문화수용이 무엇보다 타국에서 살고 있는 아내의 문화적응을 돕고 결과적으로 결혼 및 삶의 만족을 증진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무엇보다 그동안 결혼이주여성에 관해 행해진 많은 연구들은 한국문화와 결혼이주여성의 문화를 동등하게 보는 다문화주의 관점에서 보기보다, 배타적이고 우월주의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왔다고 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주의 관점에서 다문화가정의 이해에 접근함으로써 결혼이주여성의 적응 문제를 보다 더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앞으로의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적응 모델이 한국 문화에서의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에 적합한가에 대해 숙고할 필요가 있다. Berry(1980, 1990)는 주류 사회의 정책과 개인이 놓인 맥락(가정생활맥락 대 사회생활맥락), 그리고 연령에 따라 어느 문화 적응 전략을 사용하는지가 달라진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에 덧붙여 주류 문화에 따른 차이와 모국 문화배경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주류 문화가 미국인가 한국인가에 따라 다르고, 모국이 서구 국가인가 동남아시아 국가인지에 따라 주류문화와 모국문화의 상호작용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적절한 문화적응전략에도 차이

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혼이주여성들에서 동화는 통합과 부정 상관이 있어, 부정적 특징을 보였으나, Barry(2001)의 미국에 이민 온 한중일 아시아인들 대상의 연구에서는 동화가 통합과 정적 상관을 보여 긍정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에 의해서도 주류문화와 모국문화에 대한 문화적응방식은 다를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에서의 다문화가정의 여성들이 어떠한 문화적응 전략을 가지는 것이 생활에 긍정적인지, 또한 그들의 긍정적 문화적응전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주류문화의 배경을 가진 남편과 한국 사회가 고려해야 할 변인들은 무엇인지를 밝힐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 대구·경북지역의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남편 관련 변인과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결혼만족 및 삶의 만족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대구·경북지역의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소수(김한곤, 2009; 최경숙, 2006)에 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대구·경북지역의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의 적응을 증진시키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가 대구경북지역의 대상으로 국한되었으므로 모든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여성에게 일반화함에 있어 제한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본 연구에서의 대상은 대구경북지역 결혼이주여성의 결혼 및 삶의 만족은 5점 척도 상에서 각각 3.48, 3.32로 나타나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마도 본 연구의 대상이 주로 농촌거주보다는 도시거주가 더 많았던 사실과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에서 남편의 성역할 고정관념, 다문화감수성 및 아내문화 수용이 아내의 문

화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결혼과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사례수의 불충분함과 문화적응척도의 4개의 하위요인이 한 방향으로 합해질 수 없었던 성질을 보여 이들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검증은 수행할 수 없었던 한계점이 있었다.

넷째, 한국의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을 타당하게 이해할 수 있는 문화적응모델을 정립할 필요가 있고, 또한 이들의 문화적응책략을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한국의 대다수의 결혼이주 여성은 일반적 이민과 다르게 남편과 아내가 동일한 이민자가 아니라, 남편은 주류 사회의 기존의 구성원이고, 자신이 남편과의 생활에 적응해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어 이러한 점을 반영한 문화적응모델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에서의 다문화 가정의 여성들이 어떠한 문화적응 책략을 가지는 것이 생활에 긍정적인지, 또한 그들의 긍정적 문화적응책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주류문화의 배경을 가진 남편과 한국 사회가 고려해야 할 변인들은 무엇인지를 밝힐 필요가 있겠다.

끝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하는 것은 언어적 문제와 상황적 문제로 인해 매우 큰 어려움을 느꼈다. 즉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어 이해능력이 한국어 설문지를 수행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나, 그들의 모국국적도 다양하여 설문지를 각자의 언어로 모두 번안하기가 매우 어렵고 더욱이 번안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상황적 문제로는 다문화가정의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생활을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아 자료수집에 협조

할 수 있는 대상들이 제한되게 되어 다문화가정연구에 표집 편파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에 대해 보다 더 타당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점을 미리 고려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국가간 이민은 이제 전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여러 학문의 관심이 필요한 문제이다. 아직 한국에서는 이민에 대한 체계적인 학문적 접근이 부족한 상태이고, 김근영, 광금주와 배소영(2009)도 광범위한 개관연구를 통해 지적했듯이 특히 심리학적 접근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앞으로 동남아시아로부터의 결혼이주여성을 비롯한 탈북인에 관한 문화적응 및 심리적 적응에 관한 이해는 현 한국사회가 대비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보인다.

참고문헌

- 강유진 (1990). 한국남성과 결혼한 중국조선족 여성의 결혼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2). 61-80.
- 권복순, 차보현 (2006). 농촌지역 코시안가정주부의 의사소통능력. 문화적 정체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회지, 58(3). 109-134.
- 금명자, 권혜수, 이희우 (2004). 탈북 청소년의 문화적응과정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2). 295-308.
- 김근영, 광금주, 배소영 (2009). 다문화가정 연구개관과 향후 방향성.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8(3), 571-597.
- 김미자 (2008). 북한이탈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평택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양희, 장미혜, 김경희, 장윤선, 조소영, 박기남, 남정현, 김영주, 함한희, 김미경, 이미원, 김혜림, 염미경 외 (2006). 국가균형발전모델의 성주류화 전략 개발-성평등한 균형발전과 지역혁신. 한국여성개발원.
- 김영주 (2006) 농촌 거주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과 특성: 충남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사학회2006년도 정기학술대회논문집, 47-59.
- 김오남 (2006).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 연구. 가톨릭대 박사학위 논문.
- 김오남 (2007).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한국가족복지학, 12(3), 47-73.
- 김은경 (2008). 중소도시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6), 83-94.
- 김진희, 박옥임 (2008). 농촌과 도시지역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가족갈등과 생활만족도 비교: 전라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농촌사회, 18(1), 127-160.
- 김한곤 (2009). 농촌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경북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농촌사회, 19(1), 83-120.
- 김혜순 (2008). 결혼이주여성과의 한국의 다문화사회 실험. 한국사회학, 42(2), 38-71.
- 나임순 (2008). 외국인 결혼 이주여성들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비영리연구, 7(1), 97-135.
- 문은희 (2007).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과 여가참여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명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경동 (2007). 다문화가족 형성과 갈등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논문집, 1131-1152.
- 박옥임, 김진희 (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족갈등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6), 59-70.
- 박정숙, 박옥임, 김진희 (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족갈등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6), 59-70.
- 박재규 (2007).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농촌생활 적응 관련요인분석: 전북지역사례. 농촌경제, 29(3), 67-84.
- 박주희, 정진경 (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정체성.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4), 395-432.
- 박주희, 정진경 (2008). 타문화에 대한 태도발달검사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 성격, 22(1), 1-21.
- 법무부(2009). 2008년부터 2009년 8월말까지 연도별 여성결혼이민자 체류현황.
- 변미희, 강기정 (2010). 다문화 가족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 관련 요인. 한국가족복지학, 15(2), 127-141.
- 설동훈 (2006). 한국의 결혼이민자 가족: 현황과 정책. 한국가정관리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17.
- 성지혜 (1996). 중국교포여성과의 한국남성 간의 결혼 연구.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안지민 (2009). 대구지역 다문화지원 인프라 운영 모델 및 발전방향. 대구경북연구원.
- 안현정 (2003). 국제결혼부부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한국남성과 필리핀여성의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초당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순미 (2007). 농촌 국제결혼 부부의 행복에
관련변인이 미치는 효과. 농촌사회, 17(2),
5-39.
- 양순미, 정현숙 (2006). 농촌 국제결혼부부의
결혼생활 적응과 만족에 대한 영향 요인.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1(3), 223-252.
- 양옥경 (1994). 삶의 만족 측정을 위한 척도
개발. 한국사회복지학회지, 24, 157-194.
- 양옥경, 송민경, 임세와 (2009). 서울지역 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
구. 한국가족학회지, 14(1), 137-168.
- 유영은 (2006). 결혼이주여성의 생활문화적응에
관한 사례연구와 지원방안: 경기도 북부지역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 윤순갑, 김명하 (2007). 대구, 경북 지역민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동서사상, 8, 33-64.
- 윤희숙 (2004). 외국인 출신 농촌주부들의 갈등과
적응: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2004년도 한
국여성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 윤희숙 (2005). 외국인 출신 농촌 주부들의 갈
등과 적응: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지방
사 와 지방문화, 8(2), 299-339.
- 이은희 (2009). 생활스트레스에 대한 결혼 이
민자 여성의 적응연구-탄력 모델을 적용
하여. 한국가족복지학, 14(1), 73-94.
- 이정희 (2006).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과
이혼위기에 대한 사례연구. 계명대학교 여
성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운정 (2007).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결혼적응
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전병희 (2008).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관
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
문.
- 전은애 (2008). 다문화가정의 어머니-아동 상호작
용과 어머니 문화적응차원과의 관계. 서울대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승혜 (1987). 부부의 성역할 태도에 따른 결혼
만족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 정진경, 양계민 (2004). 문화적응이론의 전개와
현황.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3(1), 101-136.
- 정천석, 강기정 (2008).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생활 적응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
복지학, 13(1), 5-23.
- 조혜선 (2003). 결혼만족도의 결정요인: 경제적
자원, 성역할관, 관계성 모델의 비교. 한국
사회학, 37(1), 91-115.
- 지은주 (2011). 아동의 다문화 경험과 문화간 감
수성 및 부모 고정관념이 아동의 다문화고정
관념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석
사학위논문.
- 천혜정, 민성혜, 이민영, 최혜영 (2009). 결혼이
주여성 가족 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
로. 한국가족복지학, 14(2), 5-27.
- 최경숙 (2006).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지지와
결혼 만족도에 관한 연구-대구경북지 역을 중
심으로. 계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최운선 (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문화
적응에 관한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46(1),
141-181.
- 최혜지 (2009).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유형과 관
련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지,
61(1). 163-194.
- 통계청 (2009). 지자체별 외국인 주민현황.
- 한건수 (2006).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족 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39(1), 195-243.
- 홍기혜 (2000). 중국 조선족 여성과 한국 남성 간

의 결혼을 통해 본 이주의 성별 정치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rry, D. T. (2001). Development of a new scale for measuring acculturation: The east asian acculturation measure (EAAM). *Journal of Immigrant Health*, 3(4), 193-197.
- Berry, J. W. (1990). Psychology of acculturation: Understanding individuals moving between culture. In R. Brislin (Ed.). *Applied cross-cultural psychology*. Newbury Park, CA: Sage.
- Berry, J. W. (1980). Acculturation as varieties of adaptation. In A. Padilla(ed). *Acculturation: Theory, models and some new findings*. Boulder, CO: Westview.
-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 5-34.
- Berry, J. W. (2006). Acculturation: Living successfully in two cult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9(3), 697-712.
- Berry, J. W., Phinney, Sam, Vedder, (2006). Immigrant youth: Acculturation, identity,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55(3), 302-332.
- Berry, J. W., & Sam, D. L. (1997).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In J. W. Berry, M. H. Segall, & C. Kagitcibasi (Eds.), *Handbook of cross-cultural psychology, Vol. 3: Social behavior and applications* (2nd edition. pp. 291-326). Boston, MA: Allyn & Bacon.
- Chen, G. M., & Starosta, W. J. (2000).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intercultural sensitivity scale. *Paper presented at the 86th annual meeting of the 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Seattle, WA*.
- Gustavo, S. Mesch, H. T., & Fishman, G. (2008).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the Well-being of Immigrant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dolescence*, 37, 592-604.
- Katie, A. M. (2007). Racial/Ethnic Differences in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Symptoms in Adolescent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5, 801-816.
- Valery, C. (2009). Critical psychology of acculturation: What do we study and how do we study it, when we investigate accultur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3, 94-105.

논문 투고일 : 2011. 03. 07

1 차 심사일 : 2011. 03. 23

게재 확정일 : 2011. 04. 15

The Influence of Husbands' Sex Role Stereotype, Intercultural Sensitivity, and the Acceptance of Their Wives' Culture on Their Wives' Acculturation and Marital and Life Satisfaction in Multicultural Family: Daegu and Gyeongbuk Area

Hyun-Ran Sung

Department of Psychology,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husbands' sex role stereotype, intercultural sensitivity, and the acceptance of wife's culture on immigrant women's acculturation, marital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in multi-cultural family in Korea. The data of 100 immigrant women and their husbands were analyzed. Husbands' mean age was 41.6 and wives' mean age was 29.6.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first, husbands' sex role stereotype, intercultural sensitivity and the acceptance of wives' culture together explain only marginalization among wives' acculturation(integration, assimilation, segregation, and marginalization) significantly, but individual variable's effect was not significant. The second, husbands' acceptance of wives' culture explain marital and life satisfaction significantly. Third, only marginalization among four types of acculturation explain significantly marital and life satisfaction significantly. integration explain only life satisfaction significantly. Husbands' sex role stereotype is related with the acceptance of their wives' culture and their intercultural sensitivity negatively. In wives' acculturation, there is low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assimilation and integration and moderate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assimilation and marginalization. This study revealed that the marital and life satisfaction of immigrant women in intercultural family in Korea are explained by acculturation which was influenced by their husband's acceptance of wives' culture and they are not only immigrant wife's problem but multicultural problem.

Key words : multicultural family in Korea, immigrant wife, husband's sex role stereotype, intercultural sensitivity, acculturation, marital satisfaction

부록: 아내문화수용 척도의 문항

1. 나는 아내가 아내 나라의 말을 안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한다.
2. 나는 내가 아내 나라의 말을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 한다.
3. 나는 내가 아내 나라의 생활이나 풍습을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 한다.
4. 나는 아내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좋다.
5. 나는 아내 나라의 음식을 좋아 한다.
6. 내가 아내 나라의 문화와 전통을 받아들이기보다 아내가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 한다.
7. 나는 아내가 고향을 그리워할 때 그 이야기를 들어 준다.
8. 나는 아내 나라보다 한국의 문화와 전통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 한다.
9. 나는 설명을 통해 아내에게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이해시키려고 한다.

아내문화수용 척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문 항	요인계수		
	요인1	요인2	공통분
[요인 1]: 한국문화강요(R)(Cronbach's $\alpha=.79$)			
3. 아내 나라 생활, 풍습을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함(R)	0.78	0.33	0.72
2. 아내 나라 말을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함(R)	0.71	0.22	0.56
1. 아내가 아내나라 말을 안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R)	0.66	0.20	0.48
8. 아내나라보다 한국 문화/전통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R)	0.58	-0.03	0.35
6. 나보다 아내가 한국문화를 받아들여야 함(R)	0.47	0.02	0.23
[요인 2]: 아내문화 배려(Cronbach's $\alpha=.71$)			
7. 아내가 고향을 그리워 할 때 이야기를 들어줌	0.15	0.72	0.56
9. 설명을 통해 아내에게 한국문화를 이해시키려 함	-0.03	0.69	0.48
4. 아내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좋다	0.23	0.50	0.30
고유치	2.33	1.46	3.79

주) 위 표에서 'R'은 역채점하여 분석하였다는 의미임. 따라서 한국문화 강요 요인은 모두 역채점하여 두요인의 합산 점수를 아내문화 수용 점수로 간주하였음.